

###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https://bit.ly/31moim))

###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존재에서 나온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 2023년 한 해 동안 어떻게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지 나누어 봅시다.

###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 들어가며

<삼일의 7가지 DNA>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입니다. 우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1. 존재에서 사명이 나온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함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는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가롯 유다를 제외한 열 한 제자의 명단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임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눅 22:28-30).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상속자로서 풍성함을 누리며(참고. 시 23:5),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의 상에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사명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일에 앞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요 상속자로 부르셨으며 그 존재로부터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은 상속자가 가진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충만으로 인도한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위해 능력이 필요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눅 11:11-13).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때에야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시 23:1)는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양은 모든 주권을 목자에게 맡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의 충만함 또한 그렇습니다.

### 3.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는 기도

사도들은 여성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나라, 곧 아버지의 다스림과 임재만을 갈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참고. 눅 11:2). 기도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큰 구멍을 채우기 위해 다른 수를 내어도 공허함만 더 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에만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날마다 잠기길 소원합니다.